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 편집인 조영식
주 간 이석우
편 집 장 엄홍준
인 쇄 인 허수남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 5849
FAX(963) 5849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 5702 (교환:2056, 2860)
직통 (0331)280-2056, 2860
FAX(0331) 280-2238

제1010호 〈주간〉 1992년 11월 2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12일 창간)

교내장학 7억여원 증가

학생처 발표, 서울 11억5백78만원, 수원 8억1백만원

9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지급내역이 발표됐다.

학생처 발표에 따르면 서울캠퍼스 11억5백78만3천4백21원, 수원캠퍼스 8억1백만5천7백75원등 총 19억6백78만9천1백19원의 장학금이 3천3백63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91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보다 7억6천4백91만6백원이 증원된 것이며, 이는 입시장학생이 작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요 교내 장학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은 수혜인원

△총장장학: 서울 92만6백원(1명), 수원 3백7만2백원(3명) △입시장학: 서울 3억8천1백68만9천2백50원(3백50명), 수원 6천3백16만3천3백원(54명) △보훈장학: 서울 5천6백36만6천2백50원(1백1명), 수원 5천4백56만6천5백25원(94명) △경희가족장학: 서울 4천7백63만4천8백50원(42명), 수원 7천8백31만4천8백원(70명) △잘살기장학: 서울 7천6백35만3천4백25원(1백82명), 수원 6천9백52만6천7백50원(1백42명) △우수스: 서울 1억3천2백87만4천2백50원(1백35명), 수원 1억2천1백9만7천7백50원(1백9명) △수수B: 서울 6천9백20만원(1백75명), 수원 4천4백60만원(1백10명) △모범장학: 서울 1억2천4백54만2백21원(4백59명), 수원 1억6천3백28만원(7백28명) △근로장학: 서울 3천5백10만원(1백17명), 수원 7백만원(22명) △체육실기장학: 서울 1억1천5백62만5천4백원(1백10명), 수원 1억8천9백96만4천3백50원(1백71명) △고시장학: 서울 4천8백2만1천9백50원(71명), 수원 4백96만2천3백원(10명) △실기장학: 서울 6백만원(20명), 수원 6십만원(2명)

인복위 자원봉사단 모집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자원봉사단을 수시로 모집한다.

자원재활용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자원봉사단 1차 모집은 오는 3일 오후3시 인복위 사무실에서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원봉사단은 자원재활용에 대한 후보, 단대별로 설치되는 재활용통에 모아진 재활용쓰레기 분리 수거등을 하게된다.

우주과학과 학술제 개최

우주과학과는 오는 5일과 6일 '제2회 우주과학과 학술제'를 개최한다.

이 기간동안 학생회관 로비에서 '천체사진 전시회'와 창작춤에 관계된 프로그램 소개및 열람이 진행되며 자연대 20의 '태양프리즈마'에 대한 전공강연과 학술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경영사연구소 명칭 변경 신임 소장에 박명광교수

본교 부설 한국경제경영사연구소는 지난 30일 경희경제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는등 기구를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신임 소장으로 박명광(경영대·경제학) 교수가 임명되었다.

학생회 선거 관심 부족

단대 투표율 60%선, 유세 참여 저조

서울캠퍼스 학생회 선거가 오는 5일 총학·총여학생회 선거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4개 단대(문리대, 법대, 정경대, 가정대)학생회 선거가 지난 주에 치뤄졌으며, 나머지 단대인 사범대,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음대, 체대 학생회 선거는 오는 9일까지 완료된다.

지난 29일 경선으로 치뤄진 정경대 학생회 선거에서 기호1번 박성규(경제·87)군, 회혜재(무역·90)군이 총유권자 2천2백40명중 6백92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단일후보가 나와 찬·반 투표형식으로 이루어진 법대, 가정대, 문리대, 문리대 여학생회 선거의 경우 각 후보자들이 50~60%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되었다.

총학·총여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1·2차 유세에서 1백명기량이 참석한 것을 볼때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유세는 오는 3일 오후1시 노천극장에서 진행되며, 4일부터 이틀간 투표가 실시된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오늘 총학생회의 1차유세를 필두로 3일부터 각단대 유세가 진행, 사실상 선거에 돌입하며, 동아리연합회는 오는9일 오후 6시 학생회관 2층 열람실에서 유세 및 투표를 실시한다.

시내버스 오는 30일 증설운행

수원-학교간 스쿨버스 폐선 검토중

수원여객 61번, 62번, 신설92-1번 시내버스가 오는 11월30일부터 학교앞까지 연장운행하게 되어 학생들의 교통이용이 다소 편해질 전망이다.

지난 9월22일 구성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수원시 및 수원여객과의 협의를 거쳐 61번은 1일 8회, 62번은 24회, 그리고 신설된 92-1번은 20회 운행하게 되며, 앞으로 수원여객과 배차간격 시간표를 조정할 예정이다. 수원여중에서 학교까지 운행되던 104번은 폐지된다.

한편 시부터는 잠실에서 출발하는 100-2번 좌석버스의 학교앞 연장운행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서울시, 경기도, 용인군등에 제출, 기존 20~30분 배차 간격을 10분이내로 조정하여 운행할 것을 검토중이다.

박오수군 책 출간

박오수(법대 행정·2)군은 5남1녀 형제들의 애환이 담긴 '형제산고'란 제목의 책을 그의 형제들과 함께 명상출판사에서 발간하였다.

대선본부·'공감단' 발족식 개최

반민자, 민주정부수립 결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3일 오후1시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겸한 공정선거감시단과 대선본부 발족식을 갖는다.

축하행사가 끝난후 4시경 한신대로 집결해 '경기 총련건설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경희·한신 힘다지기'연합집회를 통해 양학교 학생회는 '선거의 공정성 실현과 부정선거저지,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내 연구비 연구실적 따라 우수자 지급

서울 1억5천만원, 수원 2천1백90만원

교무과는 92학년도 단과대 및 연구소의 교내 교수연구비와 대응연구비 지급명단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서울, 수원 지급총액은 각각 1억5천만원과 2천1백90만원으로 서울의 경우 총64명의 교수와 15개 연구소에 수원은 총19명의 교수와 4개 연구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교내연구비 □대학별: 총1억7백60만원 (인문·사회계열-2천6백60만원, 자연·예체능계열-8백10만원) ▲문리대: 11명 ▲법대: 2명 ▲정경대: 9명 ▲사대: 2명 ▲가정대: 2명 ▲의대: 19명 ▲한의대: 8명 ▲치대: 4명 ▲약대: 1명 ▲음대: 3명 ▲체대: 2명 ▲밝은사회: 1명 □연구소: 3천만원 □대응연구비: 6백만원 ◆정책과연구비 □자체평가연구비: 3백만원 □교양과정연구위원회연구비: 1백40만원 □대응연구비: 2백만원

〔수원캠퍼스〕◆교내연구비 □대학별: 총1천5백90만원 (인문·사회계열-1백40만원, 이공계열-1백80만원) ▲의대: 3명 ▲사회대: 3명 ▲체과대: 1명 □연구소: 6백만원 ▲식량자원개발연구소 ▲페이저공학연구소 ▲태권도과학연구소 □대응연구비: 6백만원 ▲유전공학연구소

한편 수원캠퍼스 연구처는 이번학기부터 교내연구비 지급을 순번에 의해서가 아닌 연구실적(논문·저서·보고서)과 학술활동, 사회기여도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9~91년까지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와 연구소에 우선 50%를 지급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 역량과시

태권도부 세계대회 4체급 석권

본교 체육부는 지난 9일부터 8일간 개최된 제7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골프부, 검단부는 단체 우승을 하였으며 농구부, 체조부, 하키부는 단체 준우승을, 그리고 사격부는 단체 3위를 차지하였다.

유옥렬(체대 체육·2)군은 체조 개인종합 1위, 이진일(체과대 체육·2)군은 8㎞m 1위, 김혜영(체과대 체육·1)양은 대회신기록으로 8㎞m 우승을 획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10일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3회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본교 태권도부는 4체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휘청거리는 대학생활

● 대학생활문화 개선 캠페인(Ⅰ)

생활속 파고든 향락문화

요즈음 학교앞 밤거리를 거닐다보면 '여기가 어디이지?'라는 물음이 생기곤 합니다.

현란한 네온싸인 밑으로 지꾸만 쏟아져가는 서점들을 보며 당신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우리학교앞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회기역까지 가는동안 서점이라곤 단 5곳 밖에는 없는 것이 우리학교의 실정입니다.

유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생산활동 뒤의 재충전을 위해 만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태가 이정도까지 되다보면 유희는 더이상 재충전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피곤하게 만드는 소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춘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제 춤추고 술마시고, 노래하는 대학문화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욱 값지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대학인 특유의 고뇌하는 문화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거폐, 노래방, 호프등이 우리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쾌락주의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대학주보사

정경대 증축공사 동국건설로 낙찰

본교 건설부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정경대 증축공사 입찰을 실시하였다.

5개 건설업체가 참가한 이번 입찰은 공사기간 6개월과 3억1천8백만원의 건설단가를 제시한 동국종합건설로 낙찰되었다.

건설부는 이번주 중 동국건설과 계약을 체결해 오는 12월달에 공사를 착수시킬 예정이다.

의대, 니혼대학과 관현악 협연

의과대학 관현악단 'Medical Ochestra' 제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7일 오후 5시 크라운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본교 조영식총장의 초청으로 본교를 방문하는 일본 니혼대학 의학부 관현악단과의 협연으로 이루어진다. 작년 니혼대학에서 협연을 가진바 있는 본교 의대는 베토벤 심포니 1번과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서곡'을 연주하며 니혼대학 의학부 관현악단은 비발디 '사계'중 '봄'과 바하의 '3중협주곡'을 연주한다. 슈베르트의 '라데치키 행진곡'을 협연할 예정이다.

수원 총여 알뜰시장 개최

수원캠퍼스 총여학생회와 대선본부 중앙지원사업단은 오는9일 외대 민주광장에서 '민주정부 수립과 의장님 영치금 마련을 위한 알뜰시장'을 연다.

총여학생회와 각 단대학생회는 오늘부터 행사당일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기증받아 가격을 책정, 판매하고 물품기증자에게는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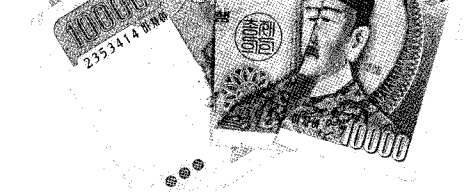
권오희양에게 따뜻한 손길을

▼총학생회장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유세전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매일 아침 등용문을 들어서는 학생들의 손엔 선거요원들이 배포한 팜플렛이 한 움큼 들려있다. 이런 가운데 몇몇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석여 조그마한 전단을 한장 한장 시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비록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은 유인물 중의 하나로 여기고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만, 그 전단에는 '우리의 친구 오희를 위한 하루주점이 11월 2일 마니분신에서 마련되니 꼭 오셔서 삶을 함께 나누자'고 씌었었다.

▼지난 10월 2일 국어국문학과 1학년 권오희양은 경기도 고양군 일대에서 예정되어 있던 정기학술답사의 사전답사를 다녀오던 길에 서울역에서 열차바퀴에 두 다리를 잃는 사고를 당했다. 현재 경희의료원에 입원해 한달여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권양은 지난 14일 2차수술을 마치고 의족을 달기 위해 왼쪽다리를 10㎝가량 절단하는 3차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권양의 사전답사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계로 공상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권양은 의료보험과 학생의료공제의 혜택만을 받게 되어 치료비의 80%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권양이 입원치료를 마칠 내년 2,3월경엔 1천만원가량을 부담해야하며 또한 재활비용(의족+물리치료)만도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내에선 '오희후원사업회'가 결성되어 모금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1학년 학생들은 매일 밤 2~3경씩 조를 짜 밤을 새며 권양을 간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권양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는 3천만원가량의 돈을 마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한다. 2만여 경희대생들의 작은 손길, 따뜻한 마음들이 모아져야만 우리들의 한 친구를 다시 설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측의 적절한 수준의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대학주보 생활문화 캠페인(1)



"세종대왕도 락카페를 찾아 보셨데?!"

• 어디를 갈까! 노래방?
• 노래방은 이제 시시해
• 그러면 락카페서 몸이나 풀까?
• 그래 심심하던 차에 잘됐다. 잘하면 한건 엮을 수도 있고…

위의 광경이 우리의 한 모습은 아닐까요?
실제 회기동 주변에 락카페만 약 10여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 느끼지 못한 사이에 소비·향락문화가 코 앞에 와 있습니다.

만원의 씀씀이가 구겨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보셨다면 이런 표정이 아닐까요?

대학주보사